

노년기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유 숙 자*

목	차
I. 서 론 II. 조사대상 및 방법 III. 조사 성적 1. 피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2. 생애의 반성 3. 은 퇴 4. 주 택 5. 노후주택 6. 위축감 및 고독감 7. 동식물 가꾸기 8. 죽 음	IV. 논 의 1. 생애의 반성 2. 은 퇴 3. 주 택 4. 노인에 대한 사회 복지관 5. 위축감 6. 동식물 가꾸기 7. 죽 음 V. 결 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 론

사회문명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으로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제반사가 가정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는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간호가 시급하게 되었다.

노년기에 맞게되는 사회로부터의 은퇴는 그들의 위축과 고독의 세계로 이끌어들이며, 오늘날의 변화하는 주택양식과 핵가족제도는 노인을 더욱더 소외시

키고¹⁾ 약화된 건강과 더불어 배우자의 죽음은 노인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하여²⁾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명제에 부딪치게 되었을 때 커다란 위기에 빠진다고 한다.³⁾

Erikson은 노년기에 대해 이시기동안 자아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위기가 오고 그 위기는 곧 혐오 혹은 절망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4) 5)} 이를테면 죽음에 대한 공포, 절망, 우울, 그리고 자살이 모두 이 혐오와 관련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도 가정과 사회에 대한 소속감⁶⁾ 의사존중, 경제적 안정 동일 그룹모임에 참여, 사회적 소시민적 의무준수, 신체적 조건에 맞는 생활조건 개선⁷⁾ 취미생활 및 종교생활을 통해 매우 바람직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 카톨릭대학 의학부 간호학과 조교수

- 1) 송영선, 정신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5, p. 80.
- 2) 김커분,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8 권 1 호, 1978, pp. 85~98.
- 3) 윤석하, 근년 10년간 종합병원정신과에 내원한 노인환자에 대한 개관, 경북의대잡지 15 권 1 호, 1974, pp. 75~87.
- 4) 유숙자 외, 정신간호총론, 서울, 수문사, 1979, pp. 214~215.
- 5) 송영선, CMI에 의한 노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고찰, 간호학회지 7 권 1 호, 1977, pp. 47~54.
- 6)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연구지, 제 9 호, 1975.
- 7) 윤석하, Op. Cit., 1974, pp. 75~87.
- 8) 유계주,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 권 1 호, 1974, pp. 162~176.
- 9) 윤석하, Cp. Cit., 1974, pp. 75~87.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문제 및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여 노년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행복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이 결과가 계기가 되어 노인간호가 정신간호 교과 과정상 하루속히 강화된 내용으로 다루어져 광의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II.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80년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60~90세의 남녀 노인으로서 노인학교, 노인정, 남산, 교회등에 출입하는 노인을 직접 면접하여 조사에 임하였으며, 모중학교 학생들의 가정에 계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토록 하였다. 조사에 응한 노인의 수는 310명이었으나 그중 37명은 연구자료로 불충분하여 제외하고 273명(남자104명, 여자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총 32개 문항으로 1. 피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2. 생애의 반성, 3. 은퇴, 4. 주택, 5. 노후대책, 6. 위축 및 고독, 7. 동 식물 기르기, 8. 죽음

<표 1> 피 조사자의 성별에 의한 배경

변인 별	성별 실수(%)	남 자		여 자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연 령	60-64	22	21.16	25	14.79	47	17.22
	65-69	32	30.77	42	24.86	74	27.10
	70-74	31	29.81	50	29.59	81	29.68
	75-79	14	13.46	26	15.38	40	14.65
	80-90	5	4.80	26	15.38	31	11.35
교 육	무 학	20	19.23	67	39.64	87	31.86
	초 등	28	26.92	77	45.56	105	38.46
	중 등	28	26.92	11	6.50	39	14.28
	고 등	19	18.26	12	7.10	31	11.35
	전문대학이상	9	8.65	2	1.18	11	4.02
종 교	기 독 교	15	14.42	48	28.40	63	23.07
	천 주 교	13	12.50	12	7.10	25	9.15
	불 교	23	22.11	75	44.37	98	35.89
	유 교	7	6.73	2	1.18	9	3.29
	무 종 교	46	44.23	32	18.93	78	28.57
계		104	100	169	100	273	100

등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분석, 처리되었고 백분율과 Chi-Square test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조사성적

1. 피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피 조사자의 연령 분포는 60세부터 90세 사이였으며 그중 70세~74세군이 29.68%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자가 65세~69세군이 30.77%, 여자는 70세~74세군이 29.59%로 가장 많았다. 교육적 배경으로는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38.46%로 남녀 모두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는 중등이 초등과 동일하였으며 여자는 부학이 39.64%로 다음 순위였다. 종교별로는 불교가 35.89%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44.23%, 여자의 경우 불교가 44.37%로 가장 많았다.

2. 생애의 반성

지나온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 보기 위하여 하는 일 중에서는 '지나온 생의 경험을 이야기 한다'가 남자 65.38%, 여자 62.13%로 모두 수위였으며 그다음은 '앨범을 자주 보거나 정리 하는 일' (19.41%)이라고 하였다. 생애의 반성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는 없었다 ($p > 0.05$)

<표 2> 과거를 되돌아 보는 제활동

성별 실수(%)	남 자		여 자		계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자서전을 쓴다	4(38.46)	1(0.59)	5(1.83)			
앨범을 자주 보거나 정리한다	11(10.57)	42(24.85)	53(19.41)			
가계(족보)를 연구 한다	16(15.38)	5(2.95)	21(7.69)			
지나온생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68(65.38)	105(62.13)	173(63.36)			
기 타	5(4.80)	16(9.46)	21(7.68)			
합 계	104(100)	169(100)	273(100)			

$$\chi^2 = 5.03, df = 4, p < 0.05$$

3. 은 퇴

<표3-1>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바람직한 정년 퇴직의 나이를 남녀모두 60세~64세가 가장 적당(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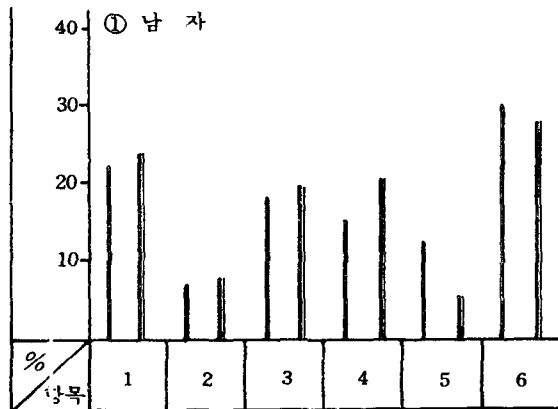
33%) 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는 65세~70세, 여자의 경우는 55세~59세로 서로 견해의 차이를 보였으며 퇴직 연령에 대한 남녀의 견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 표 3-1 > 적당한 퇴직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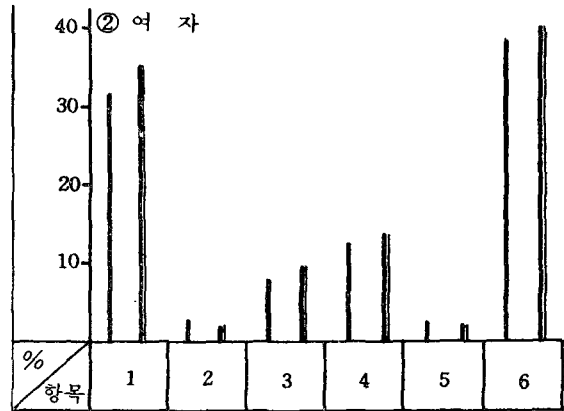
성별 실수(%)	남 자	여 자	계
	실수(%)	실수(%)	실수(%)
50-54	9(8.65)	10(5.91)	19(6.95)
55-59	19(18.26)	35(20.71)	54(13.78)
60-64	39(37.50)	52(30.76)	91(33.33)
65-70	29(27.88)	32(18.93)	61(22.34)
70세이상	5(4.80)	13(7.69)	18(6.59)
기 타	3(2.88)	27(15.97)	30(10.98)
합 계	104(100)	169(100)	273(100)

$\chi^2=14.8843, df=5,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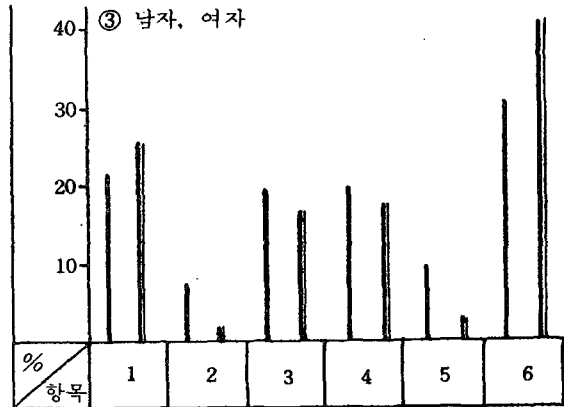
< 표 3-2 > 가정에서 주로 하는일(둘이상 가능)



70세 이하 —————
70세 이상 = = = = =



70세 이하 —————
70세 이상 = = = = =



남 자 —————
여 자 = = = = =

- 1. 손자물 돌본다
- 2. 배우자 일을 돕는다.
- 3. 정원을 손질한다
- 4. 집을 지켜준다
- 5. 용돈을 번다
- 6. 가사를 돌본다

< 표 3-3 >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방법

성별 교육별 항목 실수(%)	남 자						여 자					
	무 학	초 등	중 등	고 등	전문이상	계	무 학	초 등	중 등	고 등	전문이상	계
벌거 놓은돈	7(35)	9(32.14)	5(17.85)	7(36.85)	2(22.22)	30(28.85)	6(8.96)	6(7.79)	1(9.09)	3(25)	1(50)	17(24.64)
자식이주는용돈	11(55)	13(46.43)	16(57.15)	5(26.31)	4(44.45)	49(47.12)	54(80.59)	69(89.62)	10(90.91)	8(66.67)	1(50)	142(84.02)
다른 직업 구함	2(10)	5(17.86)	6(21.43)	6(31.58)	3(33.33)	22(21.53)	3(4.48)	0(0)	0(0)	0(0)	0(0)	3(1.78)
기 타	0(0)	1(3.57)	1(3.57)	1(5.26)	0(0)	3(2.88)	4(5.97)	2(2.59)	0(0)	1(8.33)	0(0)	7(4.14)
계	20(100)	28(100)	28(100)	19(100)	9(100)	104(100)	67(100)	77(100)	11(100)	12(100)	2(100)	69(100)

〈표 3-2〉 노인들이 가정에서 주로 하는 일로는 남녀 70세이상, 이하를 비교하여 조사하였으나 모두다 '가사를 돌본다'가 가장 많았고(34.52%)다음으로 '손자들을 돌본다'(29.26%)는 순위였으며, '용돈을 번다'나 (4.21%) '배우자일을 돕는다'(315%)는 수는 가장 적었다.

〈표 3-3〉 노인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대부분이(84.02%)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벌어논 돈으로 산다는 사람이 24.64% 정도였으며 다른 직업을 구해 조금씩 용돈을 벌고있는 사람은 1.78%밖에 안되었다.

〈표 3-4〉 사회 생활의 양태는 남자의 경우 54.95%, 여자의 경우 70.43%가 '별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봉사 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노인들도 15%정도 밖에 없었으며 학교나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강연을 해주는 경우는 2.02%로 가장 적었다.

〈표 3-5〉 여가 생활의 유형으로는 '다른 노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노인들이 44.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 70세 이하는 '취미생활'(18.55%), 70세 이상은 '여행'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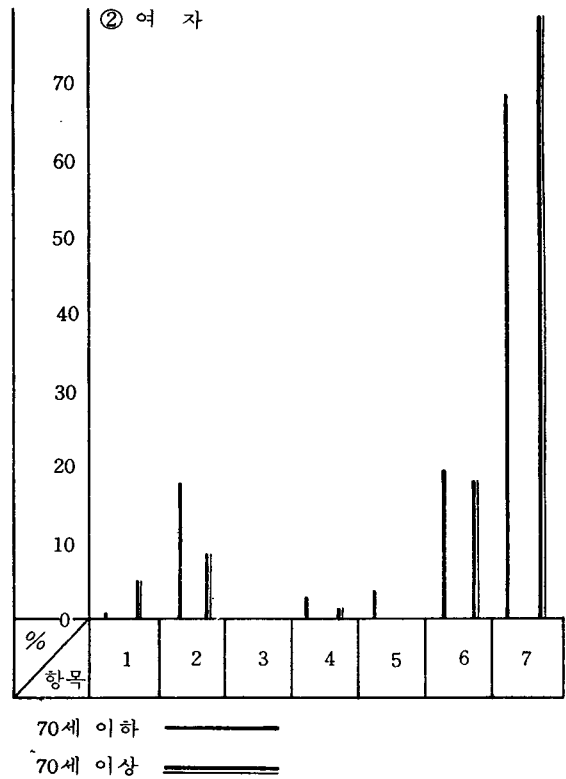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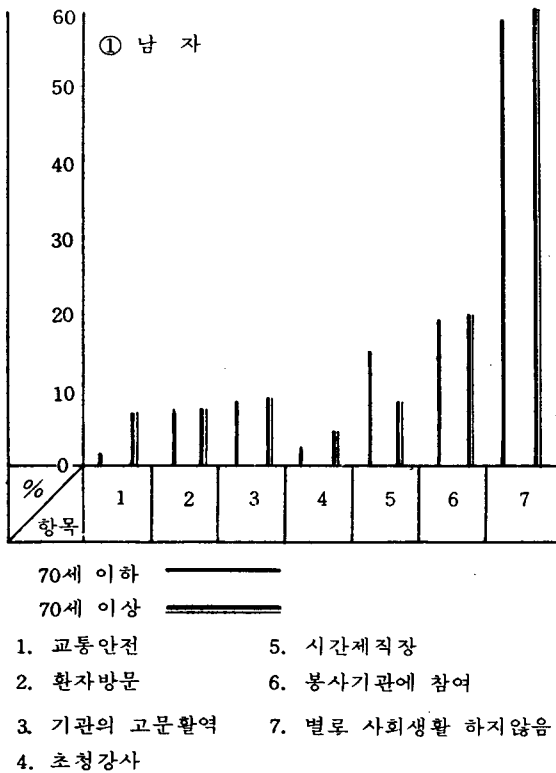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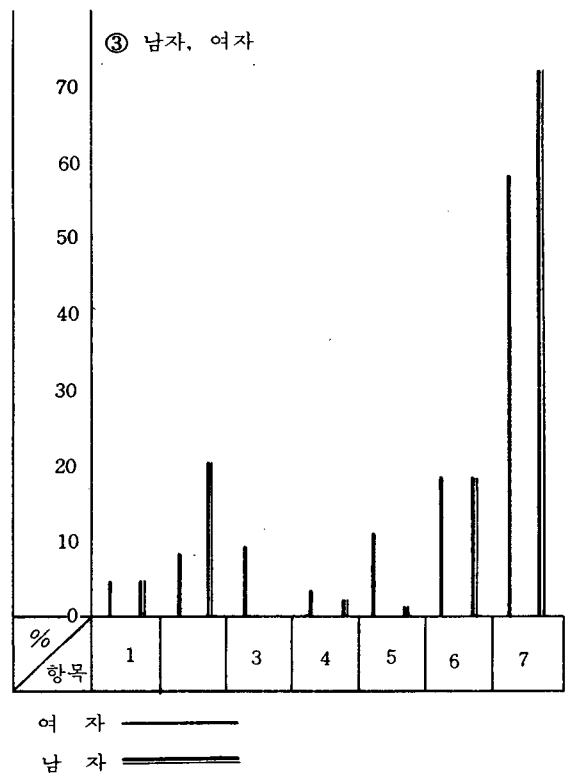


표 3-4 현재 사회생활의 양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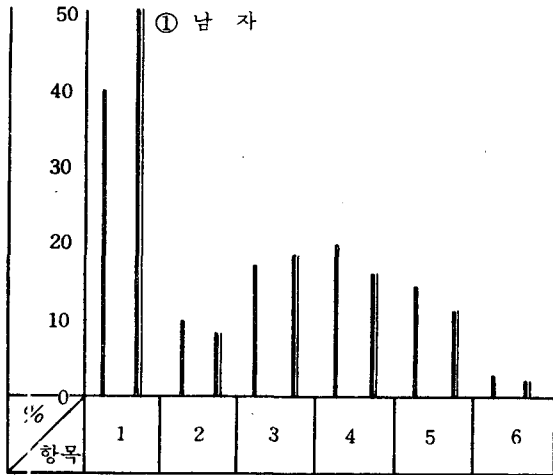
- 1. 교통안전
- 2. 환자방문
- 3. 기관의 고문활역
- 4. 초청강사
- 5. 시간제직장
- 6. 봉사기관에 참여
- 7. 별로 사회생활 하지않음



81%. 여자의 경우 70세 이하 이상 모두가 '종교활동 (26.31%)'으로 남녀 각각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경우는 '청 장년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8.47%로 가장 적었으며 여자는 '여행'이 6.47%로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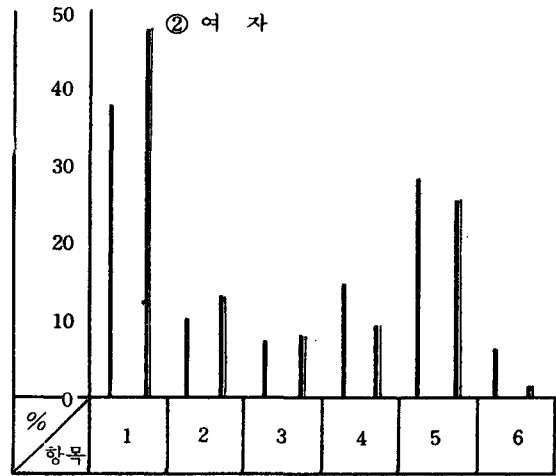
<표 3-6> 대인 관계에서 가장 기쁠 때는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방문 했을 때'가 49.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를 만날때'가 26.73%로 차순위였다. 남자의 경우 70세 이하와 이상을 χ^2 test 한 결과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p>0.05$) 여자 70세 이하와 이상에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비교 해 본 결과 유의한 차가 있었다 (각각 $p<0.05$)

<표 3-5> 현재 여가생활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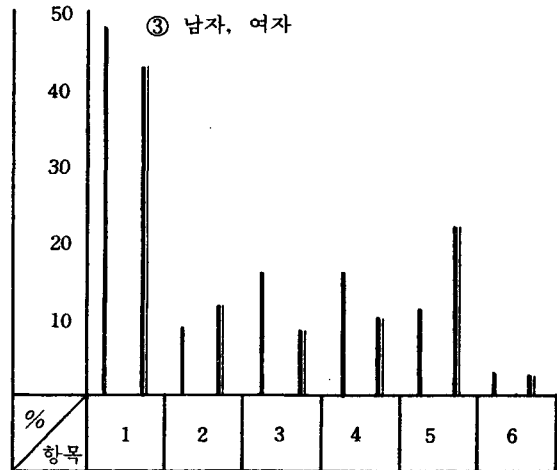


70세 이하 ———
70세 이상 = = = =

- 1. 다른 노인과의 대화
- 2. 청중년과의 대화
- 3. 여 행
- 4. 취미생활
- 5. 종교활동
- 6. 창작활동



70세 이하 ———
70세 이상 = = = =



남자 ———
여자 = = = =

<표 3-6>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

기회별	성별 연령 실수(%)	남 자			여 자			계 실수(%)
		70세이하 실수(%)	70세이상 실수(%)	계 실수(%)	계 실수(%)	70세이하 실수(%)	70세이상 실수(%)	
가족의 방문시	18(33.33)	21(42)	39(37.50)	97(57.39)	32(47.76)	65(63.72)	136(49.81)	
편지, 카드를 받았을때	6(11.11)	7(14)	13(12.50)	13(7.69)	8(11.94)	5(4.90)	26(9.52)	
친구를 만날때	21(38.88)	13(26)	34(32.69)	39(23.07)	15(22.38)	24(23.52)	73(26.73)	
지, 친목회에 참석시	9(16.66)	9(18)	18(17.30)	20(11.83)	12(17.91)	8(7.84)	38(13.91)	
합 계	54(100)	50(100)	104(100)	169(100)	67(100)	102(100)	273(100)	

$\chi^2=2.0421$, $df=3$, $p>0.05$

$\chi^2=10.3046$, $df=3$, $p<0.05$,

$\chi^2=7.9003$, $df=3$, $p<0.05$

〈표 4-1〉 희망하는 주택 환경권

성별	남 자				여 자				계
	무 학	초 등	중등이상	계	계	무 학	초 등	중등이상	
항 목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도시 중심	3(15)	4(14.28)	8(14.29)	15(14.42)	43(25.44)	21(31.34)	18(23.38)	4(16)	58(21.25)
도시 외곽	5(25)	11(39.28)	16(28.57)	32(30.77)	45(26.62)	12(17.91)	25(32.47)	8(32)	77(28.21)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시골	5(25)	9(32.14)	27(48.21)	41(39.42)	58(34.31)	22(32.83)	27(55.06)	9(36)	99(36.26)
도시에서 먼 농어촌	7(35)	4(14.28)	5(8.93)	16(15.38)	23(13.61)	12(17.91)	7(9.09)	4(16)	39(14.28)
계	20(100)	28(100)	56(100)	104(100)	169(100)	67(100)	77(100)	25(100)	273(100)

$\chi^2=10.0650, d.f.=6, p>0.05$ $\chi^2=4.6606, d.f.=3, p>0.05$ $\chi^2=7.3483, d.f.=6, p>0.05$

4. 주택

〈표 4-1〉 희망하는 주택 환경권은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시골'이 36.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외곽(28.21%), 도시중심(21.25%)의 순위였으며 성별 교육별 통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p>0.05$)

〈표 4-2〉 원하는 주택 양식으로는 대부분의 남녀 노인들이 '개인주택'을 원하였으며(84.30%) '아파트'를 원하는 노인은 15.70%밖에 안되었으며, 그밖에 양로원이나 기타 시설을 원하는 노인이 약간 명 있었다.

〈표 4-2〉 원하는 주택양식

성별	남 자	여 자	계
항목	실수 (%)	실수 (%)	실수 (%)
아 파트	10 (9.70)	31(19.62)	41 (15.70)
개인 주택	93 (90.30)	127(80.38)	220(84.30)
합 계	103(100)	158(100)	261(100)

(무 응답자 제외)

〈표 4-3〉 누구와 함께 살기 원하는가에는 68.86%에서 '자식과 더불어' 살기 원한다고 하였으며 성별로는 '두 부부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

〈표 4-3〉 원하는 동거인

성별	남 자			여 자			계
	70세 이상	70세 이상	계	계	70세 이상	70세 이상	
항 목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자 식	31(57.41)	32(64)	63(60.57)	125(73.96)	43(64.17)	82(80.39)	188(68.86)
부 부 만	15(27.78)	15(30)	30(28.84)	6(3.55)	3(4.47)	3(2.94)	36(13.18)
기 타	8(14.81)	3(6)	11(10.58)	38(22.49)	21(31.34)	17(16.67)	49(17.95)
합 계	54(100)	50(100)	104(100)	169(100)	67(100)	102(100)	273(100)

$\chi^2=2.1482, d.f.=2, p>0.05$ $\chi^2=403.8483, d.f.=2, p>0.001$ $\chi^2=739.1774, d.f.=2, p>0.001$

자의 경우 28.84%인데 비해여자는 2.94%밖에 안되었다. 혼자 살기를 원하거나 처지가 비슷한 노인들과 살기를 원하거나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반응한 노인들은 기타로 간주하였다. 통계적으로는 남자 70세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별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여자 70세 이하와 이상에서는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p<0.001$) 남녀간에도 유의한 차가 있었다. ($p<0.001$)

〈표 4-4〉 자기방을 따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이 (76.55%) 있다고 반응하였다.

〈표 4-5〉 노인들이 이사를 싫어하는 이유로는 '살던 고장의 추억 때문'이 37.36%로 가장 많았고 '친

지의 그리움 때문' (23.08%), '이사 자체가 귀찮아서' (21.24%)의 순위였으며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곤란'은 8.42%로 가장 적었다.

〈표 4-4〉 자기방의 유무

성별	남 자	여 자	계
항목	실수 (%)	실수 (%)	실수 (%)
있다	81(77.88)	128(75.73)	209(76.55)
없다	23(22.22)	41(24.27)	64(23.45)
합계	104(100)	169(100)	273(100)

〈표 4-5〉 노인들이 이사를 싫어하는 이유

항 목	성 별		합 계
	남 자	여 자	
실수(%)	실수 (%)	실수 (%)	실수 (%)
키지의 그리움 때문	24(23.08)	39(23.07)	63(23.08)
살던 고향의 추억때문	36(34.61)	66(39.05)	102(37.36)
기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곤란	14(13.46)	9(5.32)	23(8.42)
이사 자체가 귀찮아	20(19.23)	38(22.48)	58(21.24)
노상이 살던 집이므로	10(9.61)	17(10.05)	27(9.89)
합 계	104(100)	169(100)	273(100)

$\chi^2=5.7382, d.f.=4, p>0.05$

5. 노후 대책

〈표5-1〉노인들을 위해 버스요금,이발료등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고마운 일이다' 라고 반응한 노인이 72.8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찬성치 않는다' 는 12.82%로 가장 적었다. 남녀 70세 이하와 이상을 각각 χ^2 -test한 결과 유의한 차가 없었다(각각 $p>0.05$)

〈표 5-2〉 바람직한 노후 대책으로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열심히 일해서 저축 하겠다'가 50.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 '연금가입' (15.38%), 여자

〈표 5-1〉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관

항 목	성 별		남 자			여 자		합 계
	연 령 별	70세 이상		합 계	합 계	70세 이		
		실수(%)	실수(%)			실수(%)	실수(%)	
고마운 일이다	38(70.37)	34(68)	72(69.23)	127(75.15)	51(76.12)	76(74.50)	199(72.89)	
찬성하지 않는다	8(14.81)	10(20)	18(17.30)	17(10.05)	4(5.97)	13(12.74)	35(12.82)	
관심 없다	8(14.81)	6(12)	14(13.46)	25(14.80)	12(17.91)	13(12.74)	39(14.29)	
합 계	54(100)	50(100)	104(100)	169(100)	67(100)	102(100)	273(100)	

$\chi^2=0.5789, d.f.=2, p>0.05$ $\chi^2=3.0312, d.f.=2, p>0.05$ $\chi^2=2.5930, d.f.=2, p>0.05$

의 경우 '자식의존' (26.62%)의 순위였으며 보험 가입은 남녀 모두 가장 적게 반응하였다. 남녀별 통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p>0.05$).

6. 위축감 및 고독감

〈표 6-1〉 위축감에 대해서 '가끔 느낀다'가 62.27%로 가장 많았으며 느끼지 않는다(20.88%), 자주 느낀다(16.85%)순위였다. 남녀별 70세 이하와 이상을 각각 χ^2 -test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6-2〉 위축감의 이유로는 '과거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어서'가 34.16%, '신체적 건강이 좋지

〈표 5-2〉 바람직한 노후대책

항 목	성 별		합 계
	남 자	여 자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열심히 저축	59(56.73)	79(46.74)	138(50.54)
보험에 가입	11(10.57)	16(9.46)	27(9.89)
연금 가입	16(15.38)	22(13.01)	38(13.91)
자식 의존	15(14.42)	45(26.62)	60(21.97)
합 계	104(100)	169(100)	273(100)

$\chi^2=6.2038, d.f.=3,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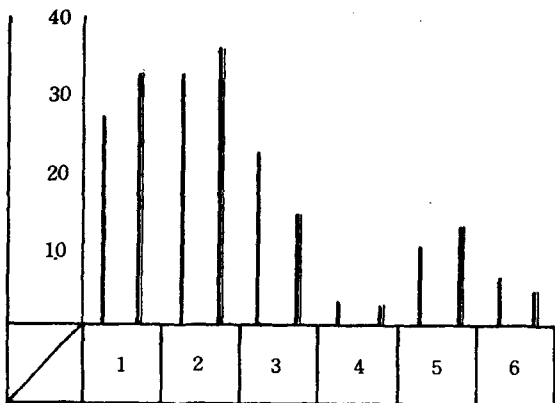
〈표 6-1〉 위 축 감

항 목	성 별		남 자			여 자		합 계
	연 령 별	70세 이하		합 계	합 계	70세 이상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자주 느낀다	9(16.67)	6(12)	15(14.42)	31(18.34)	14(20.9)	17(16.67)	46(16.85)	
가끔 느낀다	35(64.81)	32(64)	67(64.42)	103(60.95)	39(58.21)	64(62.75)	170(62.27)	
느끼지 않는다	10(18.52)	12(24)	22(21.16)	35(20.71)	14(20.9)	21(20.59)	57(20.88)	
합 계	54(100)	50(100)	104(100)	169(100)	67(100)	102(100)	273(100)	

$\chi^2=0.764, d.f.=2, p>0.05$ $\chi^2=0.6988, d.f.=2, p>0.05$ $\chi^2=0.5381, d.f.=2,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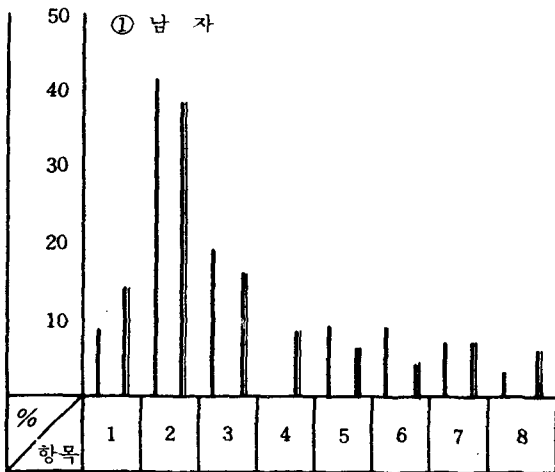
않아서'가 29.75%, '경제적 능력의 감소'가 17.63%의 순위였으며 '미적 상태의 저하'는 2.48%로 가장 적었다.

〈표 6-2〉 위축감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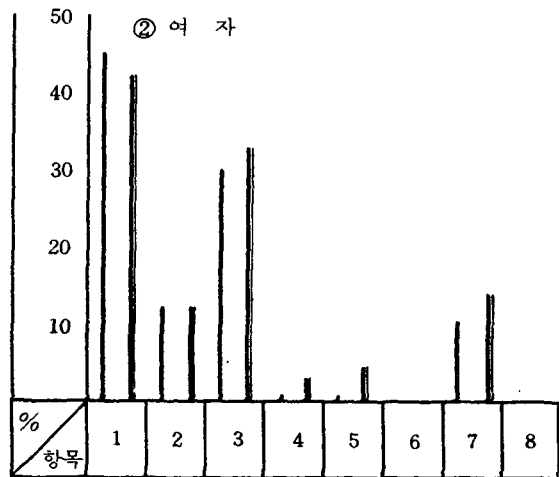
- 70세 이하 ———
70세 이상 = = = =
-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음
 - 과거처럼 운동 못함
 - 경제능력 감소
 - 미적상태 저하
 - 잦은 기억력 상실
 - 사회적 지위의 저하

〈표 6-3〉 일생중 가장 슬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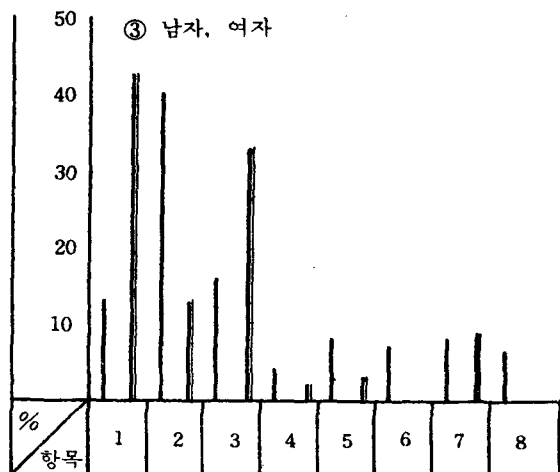


- 70세 이하 ———
70세 이상 = = = =
- 배우자사망
 - 부모사망
 - 자식사망
 - 친지사망
 - 재산손실
 - 퇴직
 - 자녀로부터의 소외
 - 기타

〈표 6-3〉 일생중 가장 슬픈일로는 '배우자 사망'이 30.76%, '자식 사망'이 26.37%의 순위였으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부모의 사망'이 39.42%로수 위인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사망'이 42.60%로 가장 높으며 남자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 11.83%로 낮게 나타났다. 자식의 사망은 여자의 경우 31.95%로 2위로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 17.30%로 역시 2위로 나타났다. '친지의 사망'이나 '퇴직'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다.



- 70세 이하 ———
70세 이상 = = = =



- 남자 ———
여자 = = = =

〈표 6-4〉 어떤때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때'가 39.02%로 가장 많았으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70세이하의 남성에서는 '사회에서의 은퇴'(41.18%),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때'(29.41%)의 순위인데 반해 70세이상 남성에서는 그 순위가 바뀌어 각각 34.09%, 36.36%였다. 여성의 경우는 70세이하에서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때(50%), '불치병으로 임종이 가까왔을때'(30.36%) 순위인데 비해 70세이상 노인에서는 그 순위가 바뀌어 각각 38.94%, 42.11%였다. 성별과 연령을 χ^2 -test한 결과 연령별로는 남녀 각각 70세이하와 이상에서 유의한 차가 없으나 ($p>0.05$) 성별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표 6-4〉 고 독 감

성 별	남 자		여 자		계
	성 령 별	70세 이상	70세 이상	계	
항 목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때	15(29.41)	16(36.36)	31(32.63)	65(43.05)	96(39.02)
내가 돌봐줄 사람이 없을때	4(7.84)	4(9.09)	8(8.42)	17(11.26)	25(10.16)
불치병으로 임종이 가까왔을때	11(21.57)	9(20.45)	20(21.05)	57(37.75)	77(31.30)
사회에서의 은퇴	21(41.18)	15(34.09)	36(37.89)	12(7.95)	48(19.51)
합 계	51(100)	44(100)	95(100)	151(100)	246(100)

$\chi^2=0.7227, df=3, p>0.05$ $\chi^2=34.1069, df=3, p<0.001$ $\chi^2=2.4222, df=3, p>$

〈표 6-5〉 고독시의 해결 방법으로는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40%), '노인정에 출입 하겠다'(11.11%) 순위로 나타났으며 '타인을 돕는 일'(4.47%)이나 '파티의 초대(5.26%) 등은 낮은 반응을 보였다.

〈표 6-5〉 고독시의 해결방법

성 별	남 자	여 자	계
항 목	실수(%)	실수(%)	실수(%)
노인들과대화	54(38.57)	98(40.83)	152(40)
청장년과대화	14(10)	14(5.83)	28(7.37)
라디오,TV시청	29(20.71)	50(20.83)	79(20.79)
노인정 출입	32(22.86)	52(21.67)	84(22.11)
타인을 도움	5(3.57)	12(5)	17(4.47)
파티 초대	6(4.29)	14(5.83)	20(5.26)
합 계	140(100)	240(100)	380(100)

7. 동식물 가꾸기

〈표 7-1〉 귀여운 동물이나 식물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67.76%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싫어하는 사람은 12%뿐이었다. 남녀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표 7-2〉 동식물 가꾸기의 유형으로는 남녀모두 '화초나 나무 가꾸기'를 가장 좋아 하였으며(59.45%) 다음이 '개'(25.91%)를 좋아 하였다. '고양이' '새' '기타 동물'은 낮은 반응을 보였다. 동식물 가꾸기를

좋아하지만 주거 조건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실제로 기르는 일이 금지되어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표 7-1〉 동물이나 식물 가꾸기

성 별	남 자	여 자	계
항 목	실수(%)	실수(%)	실수(%)
아주좋아한다	24(23.07)	43(25.44)	67(24.54)
좋아 한다	57(54.80)	61(36.09)	118(43.22)
그저 그렇다	6(5.77)	48(28.40)	54(18.68)
싫어 한다	11(9.61)	15(8.88)	26(9.52)
아주싫어한다	6(5.77)	2(1.19)	8(2.93)
합 계	104(100)	169(100)	273(100)

$\chi^2=26.7891, df=4, p<0.001$

〈표 7-2〉 동식물 가꾸기의 유형

성 별	남 자	여 자	계
항 목	실수(%)	실수(%)	실수(%)
개	35(28.23)	50(24.51)	85(25.91)
고양이	8(6.45)	8(3.92)	16(4.88)
새	8(6.45)	10(4.90)	18(5.49)
기타동물	5(4.04)	9(4.41)	14(4.27)
화초나 나무	68(54.83)	127(62.26)	195(59.45)
합 계	124(100)	204(100)	328(100)

8. 죽 음

<표 8-1> 죽음에 대한 생각은 '가끔 생각한다'가 62.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자주 생각한다'(21.32%)로 나타났다. 남자 기독교의 경우 73.34%가 '가끔 생각한다'고 반응한데 비해 남자 천주교는 58.85%, 여자 기독교와 천주교는 58.85%로 반응했으며 남자 기타에서 '자주 생각한다'가 10.42%인데 비해 여자 불교는 29.73%가 자주 생각한다고 하여 남녀간의 비교와 각 종교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표 8-2> 내세관에 대한 조사결과 내세가 있다고 반응한 사람이 53.49%, '잘 모르겠다'가 27.13%,

'내세가 없다'가 19.38% 순위였으며 '내세가 있다'고 반응한 사람을 성별, 종교별로 비교한 결과 여성의 경우 천주교, 기독교는 98%, 86.36%로 아주 높 이 반응한 것에 비해 남성의 경우는 천주교 76.92%, 기독교가 55.33%였으며 불교의 경우는 여자가 58.33%, 남자 45.46%로 천주교와 기독교보다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게 나타났다. χ^2 -test로는 남녀 각 종교별 비교와 성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남자 p<0.001, 여자 p<0.01 남녀 별, p<0.001)

<표 8-3> 사후 재산처리로는 돌이상 마음대로 반응할수 있게 하였는데 '자손에게 물려준다'가 66.34

<표 8-1> 죽음에 대한 생각

성별	남 자					여 자					계	
	종교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계	종교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항목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자주 생각	2(13.33)	3(23.08)	5(21.74)	5(10.42)	15(15.15)	40(25.16)	9(20)	2(25)	22(29.73)	7(21.58)	55(21.32)	
가끔 생각	11(73.34)	7(53.85)	14(60.87)	33(68.75)	65(65.65)	97(61)	28(62.22)	5(62.5)	42(56.76)	22(68.75)	162(62.79)	
생각 안함	2(13.33)	3(23.08)	4(17.39)	10(20.83)	19(19.19)	22(13.84)	8(17.78)	1(12.5)	10(13.51)	3(9.38)	41(15.89)	
합 계	15(100)	13(100)	23(100)	48(100)	99(100)	159(100)	45(100)	8(100)	74(100)	32(100)	258(100)	

$\chi^2=88.6664, d.f.=6, p<0.001$ $\chi^2=252.0104, d.f.=2, p<0.001$ $\chi^2=147.2158, d.f.=6, p<0.001$ (무응답자 제외)

<표 8-2> 내 세 관

성별	남 자					여 자					계	
	종교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계	종교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항목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내세가 있다	8(53.33)	10(76.92)	10(45.46)	6(12.34)	34(34.34)	104(65.41)	38(86.36)	9(90)	42(58.33)	15(45.45)	138(53.49)	
내세가 없다	3(20)	2(15.38)	4(18.18)	27(55.10)	36(36.36)	14(8.81)	1(2.27)	0(0)	6(8.34)	7(21.21)	50(19.38)	
잘 모르겠다	4(26.67)	1(7.69)	8(36.36)	16(32.66)	29(29.30)	41(25.78)	5(11.37)	1(10)	24(33.33)	11(33.33)	70(27.13)	
합 계	15(100)	13(100)	22(100)	49(100)	99(100)	159(100)	44(100)	10(100)	72(100)	33(100)	258(100)	

$\chi^2=28.4466, d.f.=6, p<0.001$ $\chi^2=35.1875, d.f.=2, p<0.001$ $\chi^2=22.0941, d.f.=6, p<0.01$ (무응답자 제외)

<표 8-3> 사후 재산 처리

성별	남 자					여 자					계	
	종교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계	종교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항 목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자손에게 물려준다	13(50)	7(43.75)	16(76.19)	41(74.55)	77(65.25)	124(67.03)	23(40.35)	11(73.33)	59(75.64)	31(88.57)	201(66.34)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사업	4(15.38)	3(18.75)	4(19.05)	8(14.55)	19(16.10)	18(9.73)	5(8.77)	0(0)	11(14.10)	2(5.71)	37(12.21)	
장 학 금	3(11.54)	1(6.25)	0(0)	5(9.09)	9(7.63)	12(6.49)	8(14.04)	0(0)	4(5.13)	0(0)	21(6.93)	
교회및 사회단체 기증	6(23.08)	5(31.25)	1(4.76)	1(1.81)	13(11.02)	31(16.76)	21(36.84)	4(26.67)	4(5.13)	2(5.71)	44(14.52)	
합 계	26(100)	16(100)	21(100)	55(100)	118(100)	185(100)	57(100)	15(100)	78(100)	35(100)	303(100)	

%로 수위를 차지 하였으며 다음이 '교회 및 학교' (14.52%), '고아원 양노원등 사회사업에 바치겠다' (12.21%) 순위였다. 성별, 종교별로 비교해본 결과 성별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종교별로는 기독교, 천주교가 불교나 기타에 비해 '교회 및 학교'에 기증하겠다는 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4> 원하는 장례 절차로는 남녀 모두 '간소하게 하기를 원한다'가 가장 많았고(69.85%) '사후 관계나 상관치 않겠다'고 반응한 사람이 22.9%였으며 '성대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7.25%밖에 없었다. 성별비교에서 통계학적 유의차를 볼 수 없었다.

<표 8-4> 원하는 장례 절차

성 별	남 자		여 자	계
	실수(%)	실수(%)	실수(%)	
간소하게	71(71.71)	112(68.71)		183(69.85)
성대하게	5(5.55)	14(8.59)		19(7.25)
상관치 않음	23(23.23)	37(22.70)		60(22.9)
합 계	99(100)	163(100)		262(100)

$x^2=1.1504, d.f.=2, p>0.05$ (무응답제외)

다($p>0.05$)

<표 8-5> 죽음에 대한 태도로는 '내세를 믿어 편안하다'가 51.34%로 가장 많았으며 '괴로운 일이다'가 34.10%로 차순위였다. 성별, 종교별로 비교한 결과 남자의 경우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내세를 믿어 편안하다'가 61.53%, 46.67%로 반응한데 비해 불교 기타에서는 '괴로운 일이다'가 각각 50%, 43.48%로 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내세를 믿어 편안하다'가 기독교 천주교에서 각각 83.3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불교의 경우는 50.70%정도였다. 남성의 경우 종교적인 면에 큰 차이를 볼 수 없으나($p>0.05$) 여성의 경우에 유의한 차를 볼 수 있었으며($p<0.001$) 남녀별 관계에서도 유의한차를 볼 수 있었다($p<0.001$)

<표 8-6> 자녀들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 물려주고 싶은것으로 과반수 이상이 '올바른 양심과 도덕'(57.51%)이라고 반응하였으며 다음이 '신앙심'(17.58%), '가풍'(12.45%)순이었다. 종교, 교육, 연령, 성별로 비교해 보면 기독교의 경우 52.38%가 '신앙심'으로 가장 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변인별로는 모두 '양심과 도덕'이 수위를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종교와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표 8-5> 죽음에 대한 태도

성 별	남 자					여 자					계
	천주교	기독교	불 교	기 타	계	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괴로운 일이다	4(26.66)	4(30.76)	11(50)	20(43.48)	39(40.63)	50(30.30)	4(8.33)	0(0)	26(36.62)	20(58.82)	89(34.10)
내세를 믿어 편안하다	7(46.67)	8(61.53)	6(27.27)	14(30.43)	35(36.46)	99(60)	40(83.33)	10(83.33)	36(50.70)	13(38.24)	134(51.34)
아 쉽 다	4(26.67)	1(7.69)	5(22.73)	12(26.09)	22(22.92)	16(9.70)	4(8.33)	2(16.67)	9(12.68)	1(2.94)	38(14.56)
합 계	15(100)	13(100)	22(100)	46(100)	96(100)	165(100)	48(100)	12(100)	71(100)	34(100)	261(100)

$x^2=6.847, d.f.=6, p>0.05$

$x^2=15.7256, d.f.=2, p<0.001$

$x^2=75.9683, d.f.=6, p<0.0001$ (무응답제외)

<표 8-6>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것

종 교	종 교					연 령					성 별		합계
	가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무 학	초 등	중등이상	70세이하	70세이상	남	여		
재 산	4(1.59)	1(4)	11(11.22)	6(6.90)	11(12.64)	7(1.73)	1(1.23)	6(4.96)	13(8.55)	3(2.88)	16(9.47)	19(6.96)	
가 풍	(6.35)	5(20)	7(7.14)	18(20.69)	10(11.49)	13(12.38)	11(13.58)	17(14.05)	17(11.18)	23(22.12)	11(6.51)	34(12.45)	
신 앙 심	33(52.38)	8(32)	6(6.12)	1(1.15)	13(14.94)	20(19.05)	15(18.52)	25(20.66)	23(15.13)	8(7.69)	40(23.67)	48(17.58)	
양심,도덕	24(38.10)	10(40)	63(64.29)	60(68.97)	48(55.17)	57(54.29)	52(64.20)	67(55.37)	90(59.21)	63(60.58)	94(55.62)	157(57.51)	
명예,지위	1(1.59)	1(4)	11(11.22)	2(2.30)	5(5.75)	8(7.62)	2(2.47)	6(4.96)	9(5.92)	7(6.73)	8(4.73)	15(5.49)	
합 계	63(100)	25(100)	98(100)	87(100)	87(100)	105(100)	81(100)	121(100)	152(100)	104(100)	169(100)	273(100)	

$x^2=120.0685, d.f.=12, p<0.001$

$x^2=15.8478, d.f.=8, p>0.05$

$x^2=3.1548, d.f.=4, p>0.05$

$x^2=26.7089, d.f.=4, p<0.001$

〈표 8-7〉 원하는 수명

성별 연령별	남 자			여 자			계
	70세 이상	70세 이하	계	계	70세 이하	70세 이상	
항 목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60-70세 미만	5(10)	0(0)	5(5.10)	11(6.92)	10(16.95)	1(1)	16(6.23)
70-74	14(28)	8(16.67)	22(22.45)	34(21.38)	26(44.07)	8(8)	56(21.79)
75-79	10(20)	8(16.67)	18(18.37)	32(20.13)	12(20.34)	20(20)	50(19.46)
80-90세 미만	13(26)	21(43.75)	34(34.69)	56(35.22)	7(11.86)	49(49)	90(35.02)
90세 이상	8(16)	11(22.91)	19(19.39)	26(16.35)	4(6.78)	22(22)	45(17.51)
합 계	50(100)	48(100)	98(100)	159(100)	59(100)	100(100)	257(100)

$\chi^2=9.1877, df=4, p>0.05$ $\chi^2=0.673, p>0.05$ $\chi^2=56.0705, p<0.001$ (무응답자제외)

보였으며($p<0.001$) 교육과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8-7〉 원하는 수명에서는 80세에서 90세가 35.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70세-74세(21.79%), 75세-79세(19.4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이하 남녀노인에서는 '70세-74세'가 가장 많았고 90세 이상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적었으며 70세이상에서는 '80세-90세미만'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70세이상 여자 노인중 1명이 이미 죽어야한다고 말했으며 무응답자중의 대부분이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반응하였다. 성별의 비교와 남자 70세이하와 이상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여자 70세이하와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IV. 논 의

1. 생애의 반성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이며 이때 해야할 과제는 자아통합이다.¹⁰⁾ 노인들은 지나온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애를 보냈는가, 자신이 해온 것은 무엇이며 할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나를 반성하며, 자신의 일생을 쓰거나 남의 일에 흥미를 느끼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온 일들을 들려주어 자서전을 쓰기도 한다. 그리고 앨범을 자주 들여다 보거나 정리하며 스크랩북을 만드는 일, 그밖에 가계를 연구

하는 일들로 시간을 보낸다.¹¹⁾ 본 조사에서 노인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제 활동중 생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이도 노인들은 앞으로 향하기보다는 뒤로 향하며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을 점차 많이하여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¹²⁾

2. 은 퇴

Havighurst¹³⁾는 이 시기의 발달 과제를 은퇴 및 줄어드는 수입에 대해 적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인이 되면 사람의 공적에서 은퇴하게 되는데 본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60-64세가 적당하다는 수가 많았으나 남녀간의 견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권¹⁴⁾은 정년제는 부득이 실시되는 것이지만 그 연령의 결정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때가 많다고 하였으며 Carter¹⁵⁾도 사람들의 수명이 더 연장됨에 따라 은퇴의 연령은 점점 높아진다고 하였다. 은퇴를 위한 준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야겠으며 권¹⁶⁾도 정년 연령보다도 정년후의 대책이 더욱 크게 문제 될 때가 많다고 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취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 경제적 상태가 높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 노인들이 가정에서 주로하는 일로는 가사를 돌보는 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자를 돌보는 일이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의 휴가나 주말에 집을 봐주는 일을 하였으며 아직도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일을 돌보는 예는 거의 없었으며 용돈을 버는 노인의 수도

10 유숙자 외, 정신간호총론, 서울, 수문사, 1979, pp. 214-215.

11) Carte F.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Macmillan Co., 1976.

12) 이광자, 정신건강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1978.

13) Havighurst, Robert J.,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53.

14) Carter F.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Macmillan Co., 1976.

15) 권이혁, 노인인과 사회적문제, 대한의학협회지, 9권2호, 1966, pp. 91-94.

16) Carter F.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Macmillan Co., 1976.

이주 적었다. 박¹⁷⁾의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가족에 대해서 집안일을 잘 돌봐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도시에서 사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노인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남녀간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벌어서 사는 사람은 1/4밖에 안되었다. 남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후 다른 직업을 구하는 욕이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는 거의 직업을 갖지 않았다. 기타로는 사회복지기관에 의탁하거나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 약간명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고 또 직장에 따라 퇴직금제도 등이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자식에게 노후를 위탁하는 관념이 상당히 뿌리깊게 박혀있다.¹⁸⁾ 하¹⁹⁾나 안²⁰⁾의 조사에서 노인들이 수입이 없었고 이²¹⁾의 조사에서도 자식에게 의존하는 예가 가장 많았고 더우므로 부동산, 이자, 유산등 벌어서 돈으로 살거나 다른 직업으로 수입을 얻는등 본 조사결과와 비슷하였다.

사회생활의 양태로는 남녀모두 별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봉사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노인이 약간 있었다. 한²²⁾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활동을 원하는 노인이 52%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원하는 욕이 낮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Foster grandparents plan 이 있어 노인들이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예를들면 소아과 환자를 돕기위해 병원에서 일하거나 청소년 센터에서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나 부모가 없는 어린이를 돕고 사랑해 주는 일들을 한다. 그밖에도 많은 사회나 대학, 기관에서 은퇴한 사람을 고문이나 강사로 모시기도 하며, 일년에 몇 주씩 과거 직업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격려가 된다.²³⁾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종교단체에서 지원

봉사대를 조직하여 노인들이 환자를 방문하거나 병원을 돕는예가 있으며 앞으로는 은퇴하여 시간과 능력이 남아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에 참여 할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 놓으면 좋겠다. 최근에 노인대학이나 노인정의 노인들이 아침출근시 교통안전을 돕는 일은 꼭 바람직한 일이라 사려된다.

여가 생활은 남녀모두 다른 노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노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자는 취미생활이나 여행인데 비해 여자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한²⁴⁾의 조사에서 취미생활을 희망하는 노인이 30.4%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볼수 있었으며 안²⁵⁾의 조사에서도 노인들의 대부분이 취미나 오락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²⁶⁾의 조사에서보면 양노원의 노인이 대도시 노인보다, 대도시 노인이 산촌의 노인보다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다. Uchimura는 노인의 정신위생에 있어서 특히 취미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으며 임²⁷⁾은 노인들이 규칙적인 취미나 오락보다 대부분 기회있는 대로 할수있는 단순한 놀이 즉 남자의 경우 화투, 장기, 바둑, 낚시등이며 여자들은 유희등을 즐긴다고 하였다. 송²⁸⁾도 노인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남자의 경우 위와 비슷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뜨게질, 수예, 화초가꾸기등이었다. 본 조사의 결과 남자의 경우 청중년과의 대화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적었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젊은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지만 젊은이들이 이를 피하므로 대화를 할수 없다고 하였다. 안²⁹⁾도 역시 젊은사람들이 노인과 밀접한 유대가 이루어져야하며 존경과 우대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노년기에 가장 적당한 여가 선택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며 최근에 많이 유행된 효도관광은 자녀들이 노부모들에게 많이 권해드려야 할일이라 생각된다.

대인관계에서 기쁠때는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방문했을때가 가장 많았는데 현 사회가 핵 가족 제도

17) 박조열, 노인의 정신위생에 관한 연구, 부산의사회지 11권 5호, 1975, pp. 38~45.

18) 권이혁, 노인인과 사회적문제, 대한의학협회지 9권 2호, 1966, pp. 91~94.

19) 하성락, 가정및 사회에 있어 노인의 지위 및 권위의 변천, 문교부 학술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1972.

20)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연구지 제 9호, 1975.

21) 이인규, 일부도시지역 노인의 건강요구와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구조조사, 대한간호 17권 1호, 1978, pp. 61~71.

22) 한덕순, 노인들의 기본요구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12권 1호, 1975, pp. 361~372.

23) Carter F. 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Macmillan Co., 1976.

24) 한덕순, 노인들의 기본요구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12권 2호, 1975, pp. 361~372.

25)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연구지 제 9호, 1975.

26) 박조열, 노인의 정신위생에 관한 연구, 부산의사회지 11권 5호, 1975, pp. 38~45.

27) 임종권, 농촌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학적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66.

28) 송영선, CMI에 의한 노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고찰, 간호학회지, 7권 1호, 1977, pp. 47~54.

29)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연구지, 제 9호, 1975.

로 점차 변하면서 자식들이 결혼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 살게 되므로 노인들은 항상 떨어져 사는 가족들을 그리워 하게 된다. 한³⁰⁾은 생일이나 명절에 가족 또는 친지들의 방문이나 선물을 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다고 하였으며 안³¹⁾도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가치관과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대우는 무엇보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한다고 하였다. 노인들에게도 친구들을 만날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드림으로 노후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노인들에 있어서도 은퇴 전부터 은퇴를 위한 준비가 이뤄져야 겠으며 은퇴후 자식이 주는 용돈에 의존하며 노인들끼리 만나 이야기나 나누는 시간보다는 건강이 허락하는한 적극적인 사회생활의 참여가 필요하며 보다 건설적인 새로운 삶의 형태가 이뤄지면 은퇴로 오는 위축과 의존이 줄어들며 마지막까지 생의 보람속에서 지낼수 있게 될 것이다.

3. 주 택

노인들이 희망하는 주택 환경권은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시골에서 살기를 원하는 수가 가장 많았는데 남녀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약간 떨어진 시골을 좋아했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도시에서 먼 농어촌을 원하였다. 많은 노인들이 직업도 없고 생활이 단조로워지므로 도시 근교에 살면서 채소도 가꾸며 맑은 공기속에서 사는 것이 복잡한 도시속에서 사는 것보다 좋을것 같다고 말하였다.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가에는 남녀 모두 자식과 살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70세이하 보다 70세이상의 노인이 더욱 많았다. 부부끼리 살기를 원하는 수는 남자의 경우 여자의 약 10배정도로 많은 차이를 볼수있었다. 하³²⁾의 보고에서 노인중 자녀들과 살기를 원하는 수가 70%로 본조사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이³³⁾의 조사에서도 결혼한 자식과 동거를 원하는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³⁴⁾의 조사에서 자녀들과 살고 있

는 수가 남자77%, 여자83.3%였다. 박³⁵⁾의 조사에서도 자녀에 대한 의존의식이 산촌노인이 대도시 노인보다 높은 율을 보이고 있었다. Sugimura도 노인의 정신 위생상 동거가 매우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⁶⁾이렇게 노인들의 대부분이 노후에 자식과 동거를 원하고 있으나 그 반대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핵가족을 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것을 큰짐으로 알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노인과 손자들을 맺어주어 한 가정내에서 따뜻한 사람이 통해 주도록함이 노인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며 소외감을 없애주는 길일 것이다.

자기방을 갖고 있는 노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약 1/4이 가족과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오늘날은 옛날처럼 한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살기가 어렵게되어 이사를 자주하게 되는데 노인들에게 몹시 귀찮고 싫은일 중의 하나인것 같다. 오래동안 정들었던 고장을 떠나야되므로 친구들을 잃게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란 어려운 문제일수 밖에 없다. Cohen³⁷⁾은 노인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능력이 감소한다고 했으며 김³⁸⁾도 노인들이 이사로 인해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4.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관

노인들을 위한 버스요금, 이발료등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대부분 고마운일이라고 하였는데 그중 70세이하의 노인들이 70세이상노인 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그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나이가 젊을수록 기동할수있는 율이 높으므로 70세이하의 노인에서 더욱 고마움을 느끼며 남자보다 여자노인의 경우 경제력이 낮으므로 더 고마움을 느끼는것 같았다. 송³⁹⁾의 경우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병원이 가장 많았고 그외에 경노당, 양노원, 목욕탕, 이발관등이었다. 미국의 경우 1935년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어⁴⁰⁾ 노인에게 많이 편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

30) 한덕순, 노인들의 기본요구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12권 2호, 1975, pp. 361~372.

31)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연구지 제9호, 1975.

32) 하상락, 가정 및 사회에 있어 노인의 지위 및 권위의 변천, 문교부학술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1972.

33) 이인규, 일부 도시지역 노인의 건강요구와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구조조사, 대한간호 17권 1호, 1978, pp. 61~71.

34)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연구지, 제9호, 1975.

35) 박조열, 노인의 정신위생에 관한 연구, 부산의사회지, 11권 5호, 1975, pp. 38~45.

36) 박조열, 노인의 정신위생에 관한 연구, 부산의사회지, 1966, pp. 6~7.

37) Joshua Cohen, Caring for the Aged, W.H.O. Magazine, April, 1972, pp. 3~6.

38) 김귀분,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8권 1호, 1978, pp. 85~98.

39) 송영선, 정신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5, p. 80.

40) Carter F.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Macmillan Co., 1976.

가 제도에 오르고 있지 않은것 같다. 이 제도에 대해 고마운일이라고 반응한 노인중에서도 대부분 버스안내양, 이발소종업원등의 불친절로 우대 카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음 만큼 불쾌유함을 경험하는 일이 많다고 호소하며 제도에 앞서 관계자들의 계몽이 앞서기를 원하였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는 국민복지를 향해 목표를 들으며 앞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많은 편이를 기대하는 바이다.

5. 위 축 감

중년기에 시작될수있는 외로움은 죽을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 위축을 더 잘 피할수 있다.⁴¹⁾ 본 조사에서 위축감을 가끔 느끼는 노인이 62%, 자주 느끼는 노인이 17%로 80%정도가 위축감을 느낀다고 반응하였는데 이것은 박⁴²⁾의 조사에서 보다 약간 더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김⁴³⁾은 노인이 갖는 소외 정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고 하였다.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로는 본 조사에서는 과거처럼 활발하게 활동 할수 없는것이 가장 수위였으며 다음이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 능력의 감소등의 순위였다. 한⁴⁴⁾도 노인들이 거동의 장애가 심할수록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했으며 이⁴⁵⁾는 신체장애로 인한 불편의 호소는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고 했다. Carter⁴⁶⁾는 질병과 쇠약이 위축의 원인이 된다고 했으며 김⁴⁷⁾은 노인의 소외 정도는 경제력에 반비례해서 소외정도가 높다고 했다. 안⁴⁸⁾도 경제력이 없어진 노인들은 과거의 지배적역할에서 의존적 역할로 변하게 되어 심리적 우울과 불안은 더욱 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감소된 수입과 신체적 힘의 나약함과 건강의 쇠퇴에 적응해야 한다.⁴⁹⁾

일생중 가장 슬픈 일로는 남자의 경우 부모의 사

망, 자식사망, 배우자 사망의 순위인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 사망, 자식 사망, 부모 사망의 순위로 남녀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조사에서 남자의 경우는 현재 배우자와 동거중인 노인이 많은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 사망한후 혼자사는 노인의 수가 많은데에도 원인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배우자를 잃은뒤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재혼의율이 낮으므로 배우자 사망은 그들의 일생에서 가장 슬픈 일로 생각할수 있겠다. 안⁵⁰⁾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배우자의 죽음으로 큰 시련을 갖게 된다고 하였고 하⁵¹⁾도 친지와 동료들의 사망이 그들 생활영역을 축소하게되므로 차차 고독한 일과를 보내게 된다고 했다.

언제 노인들이 고독을 느끼게 되는지의 조사결과 70세이하 남성에서는 사회에서의 은퇴, 70세이상 남성과 70세이하 여성에서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70세이상 여성에서는 불치병으로 임종이 가까왔을때로 각각 성별과 연령에 따라 그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60대 남성은 사회에서 은퇴한 시기가 얼마되지 않아 은퇴로 인한 고독감을 현재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70세이상 여성에게는 나이와 비례하여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므로 가장 그 반응이 높은것 같다. Carter⁵²⁾는 고독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돌본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라 했으며 고독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자신이 임종에 있을때 더 강하며 조직 사회에서 은퇴를 통해 그의 자리를 잃게 될때 느낄수 있다고 했다. May⁵³⁾와 Moustakas⁵⁴⁾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를 갖지 못할때 의사소통이 안되어 공허하고 쓸쓸하고 무의미해지며 소외를 느끼게 된다고 했으며 유⁵⁵⁾등은 종종 노인들이 친구나 배우자가 죽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된다고 했고 송⁵⁶⁾은 자식들이 성년이되어 완전히 독립하게 되므로 자신의 필요성은 그만큼 감소되며 직장에서의 은퇴

41) Carter F.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 Macmillan Co. 1976.

42) 박조열, 노인의 정신위생에 관한 연구, 부산의사회지, 11권 5호, 1975, pp. 38~45.

43) 김행자, 서울시내 일부 노인들의 소외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 권 2호, 1974, pp. 32~41.

44) 한덕순, 노인들의 기본요구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12권 2호, 1975, pp. 361~372.

45) 이인규, 일부 도시지역 노인의 건강요구와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구조조사, 대한간호, 17권 1호, 1978, pp. 61~71.

46) Carter F.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 Macmillan Co., 1976.

47) 김행자, 서울시내 일부 노인들의 소외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 권 2호, 1974, pp. 32~41.

48)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연구지, 제 9호, 1975.

49) 유숙자 외, 정신간호총론, 서울, 수문사, 1979, pp. 214~215.

50)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연구지, 제 9호, 1975.

51) 하상락, 가정 및 사회에 있어 노인의 지위 및 권위의 변천, 문교부학술연구보고서, 서울대 문리과대학, 1972.

52) Carter F.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 Macmillan Co., 1976.

53) May R., *Mans Search for Himself*, New American Library, 1967.

54) Moustakas, C., *Creativity and Conformity*, Princeton, Van Nastrand Co. Inc., 1967.

55) 유숙자 외, 정신간호총론, 서울, 수문사, 1979, pp. 214~215.

56) 송영선, 정신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5, p. 88. 80

도 역시 비슷한 감정을 가져올수 있다고 했다. 김⁵⁷⁾과 한⁵⁸⁾의 경우 종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현 생활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종교를 가짐으로 대인관계가 많게 되고 소속감을 느끼게되며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재삼 깨닫게 되는 결과라고 했다.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노인들끼리 대화를 나눈다. 노인정에 출입한다. 라디오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는 순위였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파티를 열어 손님을 초대하거나 남을 돕는 일등은 노인들에 있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⁵⁹⁾은 노인을 위한 클럽활동에 참여하는 소외감을 풀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김⁶⁰⁾은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이야기 하는데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Carter⁶¹⁾는 대인관계가 고독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며 어떤 사람을 돕는 것은 고독의 고통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최근들어 노인정이 여러곳에 생기게 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에 나가 다른 노인들과 사귀며 이야기 나눌수 있음은 좋은현상이라 생각되며 남산의 노인 그룹도 상당수에 달하는데 편히 설만한 노인정은 없는것 같았다. 하루 속히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히 쉬고 즐길수 있는 노인정이 곳곳에 많이 세워지기 바라며 노인학교의 설립도 지역사회내의 노인들에게 교육과 사교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꼭 필요한것 같다. 자손들이 노부모의 생신이나 기념일 같은때 노부모님의 친구분들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어 드립도 그들을 즐겁게 해드리는일이 될 것이다.

6. 동 식물 가꾸기

노인생활에서 귀여운 동물을 기르거나 식물을 가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 동 식물 기르기를 좋아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중 화초나 나무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개를 좋아 하였다. Carter⁶²⁾는 개와 고양이에

게 강한 애정을 나타내는 노인들이 있으며 동물들은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대치하게 될수 있다고 말하였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아파트내에서 기를수 없어 현재 기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화초나 나무도 제한된 면적에서 기르다 보니 점점 흥미가 없어진다고 한데 비해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는 동 식물 기르는 것이 노인에서 가장 힘들지 않고 오래 오래 계속될수 있는 취미라고 하였다. 노인이 되면 바쁜 일과에서 해방되어 자연과 더불어 지내기를 원하며 도시근교에 조그만 농장을 갖는것도 바람직한 일이겠다.

7. 죽 음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 경험인 죽음을 피할수 없다. 죽음이 노인에게만 닥치는 문제는 아니지만 노인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만은 사실이다. Carter⁶³⁾는 이 시기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을 되돌려 보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비애의 시작은 마지막 성숙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의 의식구조의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견해를 알아 보았다. 죽음에 대해 가끔 생각한다는 반응이 67.79%, 자주 생각한다가 21.32%로 죽음을 생각하는 노인이 84%이상 되었으며 성별 종교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여러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⁶⁴⁾은 93.3%의 노인에서 긍정 하였고, 박⁶⁵⁾은 대도시 노인 68%, 산촌 노인 77%, 양노원 노인 90%에서 긍정 하였고 송⁶⁶⁾은 가정노인 55%, 양노원 노인 88%에서 자주 생각한다 하였다. 이⁶⁷⁾는 노인들은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친근하게 되며 어느 정도의 기대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대처 한다고 하였다. Kubler-Ross⁶⁸⁾는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미래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확인하고 대비 한다면 무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했다. 노인에 있어서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의 기전(denile mechanism)이라 생각되며 오히려 긍정적 입장에서 가끔생

57) 김행자, 서울시내 일부 노인들의 소외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 권 1 호, 1974, pp. 32~41.

58) 한덕순, 노인들의 기본요장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12권 2 호, 1975, pp. 361~372.

59) 김승국, 간호심리학, 서울, 공신문화사, 1972, p. 89.

60) 김행자, 서울시내 일부 노인들의 소외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 권 2 호, 1974, pp. 32~41.

61) Carter F. 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 Macmillan Co., 1976.

62) Carter F. 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 Macmillan Co., 1976.

63) Carter F. 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 Macmillan Co., 1976.

64) 한덕순, 노인들의 기본요구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12권 2 호, 1975, pp. 361~372.

65) 박조열, 노인의 정신위생에 관한 연구, 부산의사회지, 11권 5 호, 1975, pp. 38~45.

66) 송영선, CMI에 의한 노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고찰, 간호학회지, 7 권 1 호, 1977, pp. 47~54.

67) 이광자, 정신건강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1978.

68) Kubler-Ross, Elizabeth, On Peath and dying, London, The Macmillan Co., 1969.

각해 보며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언젠가 닥쳐지는 그 순간에 위기를 갖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내세에 대한 조사에서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절반이상 되며 종교별로는 천주교와 기독교 신자가 불교나 기타보다 내세를 믿는 사람이 많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내세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김⁶⁹⁾의 연구에서 내세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27%, 유⁷⁰⁾의 종합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에 비하면 본 연구에서 노인의 경우 내세가 있다고 믿는 반응이 매우 높았다.

사후 재산처리에 있어서는 자손에게 물려 주겠다는 노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회나 학교, 고아원 양노원등의 순위였으며 장학금을 내겠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여자 노인이 다른 그룹에 비해 자손에게 유산을 물려 주겠다는 것보다는 교회나 그밖에 사회단체나 사업을 위해 바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본 조사에서 대부분의 노인이 현재 재산이 없어 물려줄 돈이 없다고 하였고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재산이 있더라도 자식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만일 재산이 있다고 가정 했을때 사후에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느냐고 물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았고 선진국처럼 죽기전에 건물이나 기념관을 만들어 후대에 많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노인은 거의 찾아 볼수가 없었다. 이러한 것으로 볼때 우리나라 노인들 중 대부분이 경제력이 넉넉지 못한채 살아 왔고 또한 돈을 쓰는데도 나와 내 가정뿐 이웃이나 사회봉사에 시야가 좁은 것을 볼수 있었다.

원하는 장례 절차로는 대부분 간소하게 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는 유⁷¹⁾의 조사와도 비슷하였다. Carter⁷²⁾는 노인들이 사망에 대한 기사를 읽는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고 장례에 대한 기록에 흥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얼마전 일간 신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호화분묘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일부 부모들에 대해 지적되었듯이 장례식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의식이면 족하리라 생각된다.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내세를 믿어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 들일수 있다는 반응이 과반수 정도였으며 다음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므로 괴로운 일이라고 반응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괴로운 일이라고 반응한 수가 많은 반면 여자가 남자보다 내세를 믿어 편안하다는 수가 상당히 많아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으며 종교별로는 천주교, 기독교는 불교나 기타에 비해 상당히 많은수가 죽음에 대해 편안하다고 반응하였다.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는 많이 있으며 한⁷³⁾은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관계가 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고 유⁷⁴⁾도 종교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⁷⁵⁾도 약 절반 정도에서 종교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Robert⁷⁶⁾는 종교적 견지나 철학적 신념은 죽음의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용이하며 긍정적이라고 하였고 김⁷⁷⁾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 경험의 어디에나 다 있고 또한 노인은 젊은이보다 더욱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되며 인간은 죽음 그 자체보다 헤어진다는 그 사실 즉 모든것을 상실함에 더 큰 아픔을 느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utton⁷⁸⁾은 죽음은 무지의 것이며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는 것이라고 했다. 죽음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에는 분명하며 이로 인한 상실로 괴롭고 슬픈일 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내세에 다시 만날수 있다는 희망으로 잠깐의 이별로만 생각하게 되므로 다시 만날날을 기다리며 그 슬픔을 쉽게 견딜수 있게 될것이다.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것을 조사해본 결과 과반수 이상이 옳바른 양심과 도덕이라고 하였고 종교별로는 기독교의 경우에서만 신앙심이 더욱 우세하였다. 그밖에 교육별, 연령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원하는 수명에서는 80세에서 90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70~74세 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하였고, 이미 너무 오래

69) 김귀분,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8권1호, 1978, pp. 85-98.

70) 유계주,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권1호, 1974, pp. 162-176.

71) 유계주,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권1호, 1974, pp. 162-176.

72) Carter F.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Macmillan Co., 1976.

73) 한덕순, 노인들의 기본요구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12권2호, 1975, pp. 361-372.

74) 유계주,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권1호, 1974, pp. pp. 162-176.

75) 김귀분,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8권1호, 1978, pp. 85-98.

76) Robert N. Butter, Myrna I. Lewis, Aging and Menutal Health, Saiut Louis, The C. V. Mosby, Co., 1973.

77) 김귀분,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8권1호, 1987, pp. 85-98.

78) Autton, Norman, The Pastoral Care of the Dying, New York, Lippincott, .

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명 만큼은 자신의 임의대로 할수없는 것이므로 아무때라도 하늘에서 부르면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노인의 경우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는날까지 건강하고 편안히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누구나 바라는 바인것 같다. 젊은이들은 이 점을 생각하여 노인들을 공경하며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해하며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드리며 편안한 여생이 되도록 도와드려야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1980년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90세의 남녀노인 273명을 대상으로 생애의 반성, 은퇴, 주택, 노후대책, 위축및 고독, 동 식물 기르기, 죽음등 노인들의 사회, 경제, 심리적면의 제반문제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 보기 위하여 하는일 중에서 '지나온 생의 경험들을 이야기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사회에서 은퇴하는 연령으로는 '60세~64세가 바람직하다'고 반응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퇴직연령에 대한 남녀간의 견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은퇴후 가정에서 주로하는 일로는 남녀모두 '가사를 돌본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자를 돌보는 일'이라고 하였다. 노인들의 경제문제 해결은 대부분이 '자식이 주는 용돈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 생활의 양태로는 '별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았다. 여가 생활을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하여 '다른 노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미생활'과 '여행'을 다닌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에서는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방문했을때가 가장 기쁘다'고 반응하였으며 여자 70세이하와 이상에서 그리고 성별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희망하는 주택 환경권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이 가장 많았고 성별, 교육별 통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원하는 주택양식으로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개인주택'에서 살기를 원하였으며 양노원이나 그밖에 시설을 원하는 노인은 극히 적었다. 원하는 동거인으로는 '자식과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는 노인들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방을 따로 갖고 있는 노인이 대

부분이었고 이사를 싫어하는 이유로는 '살던 고장의 추억때문' '친지의 그리움 때문' 등의 순위였다.

4. 노후 대책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고마운 일'이라고 반응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바람직한 노후 대책으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겠다'는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남녀별 통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위축감을 '가끔 느낀다'는 노인들이 많았고 그 이유로는 '과거처럼 활발하게 행동할수 없어서'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경제 능력의 감소' 등의 순위였고 일생에서 가장 슬픈일로 남자의 경우의 경우는 부모의 사망'인데 비해 여자 노인은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반응하였다. 노인들이 고독을 느끼는 때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때'가 가장 많았고 성별, 연령별로 비교해본 결과 70세 이하의 남성에서는 '사회에서의 은퇴'가 70세이상 여자에서는 '불치병으로 임종이 가까왔을때'가 각각 수위를 나타내어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같은 나이또래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타인을 돕거나' '파티에의 초대'하는 사람은 가장 적었다.

6. 동물이나 식물 가꾸기를 대부분 좋아 하였고 남녀간에 유의한 차가 있었다. 그 유형으로는 화초나 나무 가꾸기를 가장 좋아하였다.

7. 죽음에 대한 생각은 '가끔 생각한다'는 노인들이 가장 많았다.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그중에서 특히 천주교와 기독교의 여성에서 대단히 높은 반응을 보였고 성별, 종교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 재산처리에 있어서 '자손에게 물려 주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장례 절차는 '간소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많았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는 '내세를 믿어 편안하다'가 가장 많았으나 불교및 기타의 남성에서만 '괴로운 일이다'가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종교적인 면에선 여성의 경우에 유의한 차를 볼수 있었으며 남녀별 관계에서도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귀중한 유산으로는 '올바른 양심과 도덕'이 가장 많았고 종교적으론 기독교가 '신앙심'으로 수위를 나타내었으며 종교와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교육과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원하는 수명으로는 80세에서 90세가 가장 많았고 90세이상을 원하는 노인이 가장 적었다. 여자 70세이하와 70세 이상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 권이혁, 노인인구와 사회적문제, 대한의학협회지, 9 권 2 호, 1966, pp. 91—94.
- 김귀분,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8 권 1 호, 1978, pp. 85—98.
- 김순범, 신경정신과 노인환자에 대한 임상적고찰, 신경정신의학, 16권 2 호, 1977, pp. 147—167.
- 김승국, 간호심리학, 서울, 공신문화사, 1972. p. 89.
- 김행자, 서울시내일부 노인들의 소외 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 권 2 호, 1974, pp. 32—41.
- 박상이, 노인심리와 그들의 희망, 노인생활, 대한노인회, 1976, pp. 6—7.
- 박조열, 노인의 정신위생에 관한 연구, 부산의사회지, 11권 5 호, 1975, pp. 38—45.
- 송영선, CMI에 의한 노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고찰, 간호학회지, 7 권 1 호, 1977, pp. 47—54.
- 송영선, 정신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5, p. 80.
-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 적용에 관한연구, 이화간호연구지, 제 9 호, 1975.
- 우재걸, 우리나라 양노원 운영에 대한조사, 공중보건잡지, 10권 1 호, 1973, pp. 81—87.
- 유계주, 죽음에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 권 1 호, 1974, pp. 162—176.
- 유숙자 외, 정신간호총론, 서울, 수문사, 1979, pp. 214—215.
- 윤석하, 근년10년간 종합병원 정신과에 내원한 노인환자에 대한 개관, 경북의대잡지, 15권 1 호, 1974, pp. 75—87.
- 이광자, 정신건강 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1978.
- 이인규, 일부 도시지역 노인의 건강요구와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구조조사, 대한간호, 17권 1 호, 1978, pp. 61—71.
- 임중권, 농촌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학적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6.
- 하상락, 가정 및 사회에 있어 노인의 지위 및 권위의 변천, 문교부 학술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1972.
- 한덕순, 노인들의 기본요구에 관한조사, 공중보건잡지, 12권 2 호, 1975, pp. 361—372.
- 한동세, 정신과학, 서울, 일조각, 1972.
- Autton, Norman, *The Pastoral Care of the Dying*, New York, Lippincott.
- Carter F. M., *Psychosocial Nursing*, New York : Macmillam Co., 1976.
- Jashua Cohen, *Caring for the Aged*, W. H. O. Magazine, April, 1972, pp. 3—6.
- Havighurst, Robert J.,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53.
- Kubler—Ross, Elizabeth, *On Death and dying*, London, The Macmillan Co. 1969.
- May R., *Mans Search for Himself*, New American Library, 1967.
- Moustakas, C., *Creativity and Comformity*, Princeton, Van Nastrand Co. Inc., 1967.
- Robert N. Butter, Myrna I. Lewis, *Aging and Mental Health*, Saint Louis, The C. V. Mosby, Co. 1973.

Ego Structure in Life Process of the Aged in Korea

Yoo, Sook Ja*

Current statistics reveal remarkable prolongation of the average longevity in this country for the past decade. Welfare of the aged is no longer sole concern of the person or/and family, but has aroused social concern on the community and national level.

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social, economic and emotional needs of the aged, and to identify problems they are confronting.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ing 273 subjects living in Seoul from July 25, to August 31, 1980. Frequencies and percentile scores were analysed to describe the fact, and the significance of inter-variable differences was tested by Chi-square method.

Results are :

1. Majority of the subjects (male : 65.38%), (female : 62.13%) "talk about past experiences" to recollect their past days,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respondents was not significant.
2. Except few who earn their pocket money (4.21%), majority were doing household errands (34.52%) and looking after their grand children (29.26%).

Main sources of their pocket money revealed to be their children (84.02%) and their own savings (24.64%).

Except few (15%) engaged with social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leisure hours are spent in chatting with aged neighbors (44.81%).

Highest in the rank order on the joyous moments for the aged revealed to be when the members of family living apart paying a visit (male : 37.5%, female : 63.72%) difference of male and female was significant ($P < 0.05$).

Among female respondent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e group was revealed ($p < 0.05$).

3. Majority preferred single houses (84.30%), as residential environment, the suburban (36.26%) area was the first in the rank order : difference between age group and the educational status were not significant. Majority of respondents revealed to have their own room in the house.

The first preference was given to live with their children (68.86%). Memory of the past (37.36%) revealed to be the highest in the rank order among the reasons why they dislike moving the house.

4. Majority favored current welfare benefits provided for the old age, however, the ideal way to live at their old age they responded was to live on their own savings (50.54%).
5. Majority revealed to be daunted occasionally (62.27%) by not being less active (34.16%) socially and by poor physical health (29.75%).

Male and female differ in the causes of loneliness significantly ($p < 0.001$) : retirement (37.89%) in male and helplessness (43.05%) in female revealed the highest in the rank order. Majority talk ove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their feelings with aged neighbors to overcome the loneliness.

6. Majority were in favor of planting and looking after pet animal in the house, however, male and female differ in the kind significantly ($p < 0.001$).
7. Majority think about death and dying occasionally or more (84.11%).

Many of the respondents believes in the life after life (53.49%) : female reveal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p < 0.01$), and subjects with christian belief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christians ($p < 0.001$). Attitude towards death and dying differs significantly between male and female ($p < 0.001$) and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p < 0.001$). Highest preference was given to simple funeral (69.85%).

Precious heritage that they would pass on to their descendants was onoscience and ethical value(57.51%) : christian response as the first value was christian belief (52.38%).